평 화 선 언

「75년간은 풀도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8월6일부터 59년. 그날의 고통을 아직까지 짊어진 주검들—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슴에 안은 채 유명을 달리하신 영혼들이 지금 다시 니노시마에 환생하여 원폭의 비인도성과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류는 아직도 그 참상을 충실히 표현할 만한 어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상상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무감각해지고, 장래를 내다보아야 할 이성의 눈은 흐려졌으며, 용기있는 소수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자기중심주의는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UN으로 대표되는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은 멈출줄 모르고, 폭력을 증폭시키는 테러에 대한 의준과 북한 등에 의한 실체가 없는 「핵무기보험」에의 가입이 시대의 흐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위기를 우리들은 인류사라고 하는 문맥속에서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간사회와 자연이 엮어내는 순환이 무위로 돌아가는 피폭 60주년을 앞두고,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인류에게 있어서 미증유의 경험이었던 피폭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앞으로 1년 동안 새로운 희망의 씨를 뿌리고, 미래로 향하는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하여, 히로시마시는 전세계 109개 국가 및 지역, 611개 도시로 구성되는 평화시장회의와 함께, 오늘부터 내년 8월9일까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기억과 행동의 1년」으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피폭후 75년째에 해당하는 2020년까지 이 지구상에서 모든 핵무기를 없앤다고 하는 「꽃」을 피우는 데 있습니다. 그 때야말로 「풀도 나지 않는」 지구에 희망의 생명이 부활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뿌리는 씨앗은 2005년 5월에 싹이 틈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UN의 핵비확산 조약 재검토회의에서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2010년까지 핵무기금지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중간목표를 담은 행동프로그램이 채택되도록 전세계의 도시, 시민, NGO,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긴급행동」을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 각지에서 이 긴급행동을 지지하는 큰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EU의회가 압도적 다수로, 6월에는 1183개 도시가 가맹한 전미시장회의 총회가 만장일치로 강력한 형태의 긴급행동 지지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전미시장회의에 이어, 양식있는 미국 시민들이 인류애의 관점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긴급행동」 지지의 본류를 이루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핵무기 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은 핵무기의 비인간성과 전쟁의 참혹함을,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피폭자들의 증언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히로시마·나가사키 강좌」의 보급에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더욱이 앞으로 1년간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어른들 세대가 피폭체험기를 읽어 들려주는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들의 대표로서 세계에 자랑할만 한 평화헌법을 옹호하고, 국내외에서 점차 현저해지고 있는 전쟁 및 핵무기 용인의 풍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피폭국의 책무로서 평화시장회의가 제창하는 긴급행동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핵무기 폐기를 위하여 세계의 리더가 되어 큰 물결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해외 및 검은비(원폭으로 인해 검은비가 내린 히로시마) 지역도 포함하여 고령화한 피폭자들의 실태에 맞는 따뜻한 원호대책의 충실화를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피폭60주년을 핵무기 폐기의 싹이 돌아나는 희망의 해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1년간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온 힘을 다하여 행동할 것을 굳게 약속하면서, 모든 원폭희생 영령들에게 삼가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2004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장 秋葉忠利

번역 : 일본컨벤션서비스 주식회사